■ 지방선거 핫코너

전갑길 "경선, 공정·객관성 충족해야"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1일 "광주시장 후보 경선방식의 잣대는 공정성과 객관성이면 충분하다"면서 "유·불리를 떠나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경선방식이든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일부 후보들 사이에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정 후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중앙당의 입장과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경선방식을 도입하든지 유권자인 광주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인 만큼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박지사, 도민과의 대화 중단을"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도민과의 대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후보의 공직사퇴 시한을 감안하면 박지사의 임기는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선거법 시비를 불러오는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임기를 충실히 마무리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성실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형석 "광주 북구청장 출마"

이형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은 1일 "북구를 자족형 혁신 도시로 성장시켜 광역 자치구의 표본을 만들겠다"며 광주시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화와 자치의 정신이 넘치던 북구가 민선 4기 들어 관선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광역도시 정책에 묻혀 자치구의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참으로 아쉽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2단계 조성과 R&D특구지정 등 북구의 강점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따뜻하고 당당한 북구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희망과 대안 '시민배심원단' 모집

'광주 희망과 대안'은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만들기 위한 '시민배심원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만19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까지 2천10명을 모집한다. 시민배심원단으로 선정되면 오는 19일부터 7월까지 좋은 후보 선정기준 마련, 추천 및 선정, 좋은 후보 당선 운동 및 유권자 운동 전개활동을 펼치게 된다.

다만, 정당원이나 특정 후보 캠프 활동자는 참여를 배제한다. 문의 (062)222-3980 e-mail=2010gjhope@g-mail.com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천=당선' 민주당 치열한 집안싸움

조형래 '3선 도전'에 후보 4명 강력 저지 나서

경력·출신 등 다양 "잘 사는 곡성" 한 목소리

■곡성군수 입지자

조형래 군수가 3선 고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다. 이영진 전 곡성군의회 의장, 류근기 전 전남도의원, 허남석 전 곡성경찰서장, 박정하 곡성신문사 사장 등도 "3선만은 안 된다"며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5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아직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 등의 후보군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전형적인 민주당 텃밭 가운데 하나다.

선거전의 제1화두는 '잘사는 곡성 만들기'다.

조형래 군수는 두 번의 재임기간 동안 친환경 농업 정착과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 등 생태관광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온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생태농업과 녹색관광이 살아 숨 쉬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자연 속의 가족마을' 을 만든 것도 자랑거리다. 농민회장 출신으로 지역 농민들이 가장 든든한 후원세력이다. 그는 "옥과 거점면 , 석곡 돌실권역 개발과 곡성 레저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전 곡성군의회 의장은 '잘사는 곡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군수직에 도전한다. 이 전 의장은 16년간의 행정경험, 8년간의 군의회 의정 경험으로 지역 실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평통협의회장, 섬진강보전협의회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다져온 지지기반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는 "수려한 산과 들로 둘러싸인 곡성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친환경을 전국의 제일 상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곡성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류근기(48)	박정하(54)	이영진(57)	조형래(61)	허남석(55)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평통 곡성군협의회장	곡성신문사 사장	전 곡성군의회 의장	곡성군수	전 곡성경찰서장

류근기 전 전남도의원도 출사표를 던지고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40대 젊은 지도자'를 내세우고 있는 류 전 도의원은 전문성과 강한 추진력을 갖춘 화합형 리더임을 자평하고 있다. 그는 "20년 동안 지역에서 봉사하며 살아온 탓에 지역실정을 너무나도 잘 안다"면서 "도의회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소외받는 지역, 군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배움의 자세로 군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남석 전 곡성경찰서장도 일찌감치 군수 출마 의지를 밝히고,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경찰서장 재직시절부터 군수직에 뜻을 두고 지역민과의 접촉을 늘려온 허 전 서장은 인지도 향상에 주력하며, 지역 각계 각층을 기반으로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침체한 지역경제,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 열악한 교육환경, 인구 감소 등으로 곡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문화·관광·농업 등 각 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돈 잘 벌고 살기좋은 곡성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곡성신문사장도 군수에 도전한다. 박 사장은 30대 후반부터 재광 곡성향우회에 참여하면서 향우회지 '섬진강'을 제작, 곡성군의 향토사와 향우들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향우회 발전을 이끌고, 지역신문 운영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현안에 밝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는 "곡성군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곡성 발전의 전략과 마인드를 익힌 혁신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농촌사회의 낙후성과 문화복지 수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비전을 지닌 참신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①조형래 군수 3선 성공할까

② 고현석 前 군수 출마 여부

■쟁점&변수

곡성 군수 선거전에선 조형래 군수의 '3선' 성공 여부, 고현석 전 군수의 출마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다.

초대 민선 군수에 당선됐던 조 군수는 민선 2~3기를 내리 고현석 전 군수에게 내준 뒤 '와신상담' 끝에 민선 4기 군수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해냈다.

조 군수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열린우리당 후보였던 고현석 군수를 78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될 정도로 지지기반이 튼튼하다.

'1만 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고정 지지표가 확실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따라서 조 군수의 '3선 도전'은 이번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조 군수는 지난해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사기)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군수 당선 이전의 일이지만, 조 군수의 형사처벌 건이 이번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민주당에서만 4명의 다른 후보가 경선전에 나선 것도 이런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도전자들이 모두 '지역 토박이론'와 '지역발전 공헌론'을 화두로 표밭을 갈고 있어 경선 후반 민심의 향배가 어느 후보에게 기울어질지 관심이다.

고현석 전 군수의 출마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아직까지 본인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주변의 권유가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강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 전 군수의 측근은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출마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3의 인물이 공천장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새로운 인물이 떠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략공천의 근거는 지역민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도의회 행 티켓 1장으로 줄어

현역 2명 "경제 활성화" 맞짱

■도의원 입지자

이번 선거에서 곡성군 도의원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현역 도의원 2명이 1장으로 줄어든 도의회 행 티켓을 놓고 대결할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조상래 도의원은 곡성읍이, 정환대 도의원은 옥과읍이 지지기반이다.

둘 다 '재선'을 향한 의욕이 강해 군수 선거보다 더 치열한 도의원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조의원은 학사장교 출신으로 곡성청년회의소 회장과 전남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온 것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곡성군 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서 체육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내 지지기반도 탄탄한 편이다. 조 의원은 "친환경 농업과 과수 대체작물을 통한 소득증대,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농공단지의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군 도의회 입지자

이 름	경 력
정환대(민·51)	전남도의원
조상래(민·53)	전남도의원

정환대 의원은 한농연 곡성군 연합회장과 곡성군의회 부의장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지층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장을 역임했던 정 의원은 "군의원 4년, 도의원 4년 등 8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살맛나는, 활력이 넘치는 곡성을 실현하기 위해 곡성군 도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면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중심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